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공동의 문제, 바다와 기후위기

18호

2022.09.- 10.

column 칼럼	부울경과 바다, 그리고 기후위기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사장
issue 이슈 1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issue 이슈 2	1제곱미터의 우주 창파 실험실 C 아트 디렉터
issue 이슈 3	“생명평화미술행동”, 사회적 문제에 미술로 행동하다. 성효숙 화가
문화+기후위기	예술계 밖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문화예술의 접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9.- 10.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8호 | 2022.09.- 10.

이번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제18호는 "부울경  
공동의 문제, 바다와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원고를 구성하였습니다. 부울경 지역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해양오염 문제를 문화예  
술 활동과 어떻게 연결하여 협력해나가고 있  
는지, 실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03 column 칼럼

부울경과 바다, 그리고 기후위기

모상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사장

06 issue 이슈 1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09 issue 이슈 2

1제곱미터의 우주

창파 실험실 C 아트 디렉터

13 issue 이슈 3

“생명평화미술행동”, 사회적 문제에  
미술로 행동하다.

성효숙 화가

16 문화+기후위기

예술계 밖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문화예술의 접점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20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3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부울경과 바다, 그리고 기후위기

모 상 미

모이다아트협동조합 이사장

### #피부로 느끼는 기후위기

매년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20년에 찾아온 집중호우, 2021년의 10월 한파주의보, 2022년 8월의 기록적 폭우와 9월의 '힌남노'등 해마다 더 강하게 찾아오는 기후 위기 소식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은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마지막 노선에 가까워진 지구의 온도와 이로 인한 가뭄, 홍수, 폭한 등 영향으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로 지구 평균기온이 1도만 더 상승해도 남북극의 빙하들이 녹아 해수면의 상승으로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상당수 바닷속으로 잠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는 본래 예전부터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지속해서 기후가 바뀌는 과정을 겪어 왔지만, 오늘날의 기후 변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배출한 온실 기체로 인해 지구 전체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금의 기후 위기는 지구도, 우리 다음 후손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겨누고 있다. 빙하가 녹아 살 곳을 잃은 북극곰, 이상 가뭄으로 농사를 망친 아프리카 농부의 이야기부터, 우리나라의 폭우까지 한 지역의 기후 위기 피해가 돌고 돌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와 같다. 이산화탄소 배출, 쓰레기 발생 등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사람도 모두 우리이자 나 자신이다. 기후위기 문제를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때인 것이다.

## #예술로 바라보는 기후위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전방위적으로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일상에서 삶의 양식이나 사회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따라 기후 문제와 관련된 위기 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연, 전시 등의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다. 관객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에서 사소한 행동 변화의 시작을 촉구하는 시도인 것이다.

예컨대 기후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환경 주제 전시 'EARTH MOOD'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고려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시점에서,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고민하는 전시이다. 작품들은 '맑음·흐림·슬픔' 세 가지 범주를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관객과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환경을 탐구하는 일을 통해 정서적 깨달음을 예술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승규 작곡가는 음악가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후위기와 관련해 인간이 해왔던 불편한 진실들을 알게 됐고, 이후 음악과 접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으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겪는 동물을 주제로 한 피아노 모음곡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도', 버려진 농약 분무기를 재활용해 만든 첼로로 연주하는 유니크 첼로 콰르텟 첼로 4중주단 창단을 통해 전문 연주자들이 재활용 악기로 환경 보호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바다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부울경

'부·울·경'. 무엇이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살펴보자. 울산 반구대 암각화, 부산 동삼동 패총, 암남동, 영선동, 다대포 패총과 울산 신암리, 경남 진해 안골포, 통영 연대도 등에 산재한 패총과 수많은 선사유적이 존재한다.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한 유적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부터 부울경이 바다를 통해 초광역권을 형성하며 해양문화와 관련된 동질성을 지녀왔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울경 지역은 교통, 관광, 쓰레기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바다라는 공통적인 특성과,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던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부산, 울산, 경남 이 세 지역이 하나 되어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문화예술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에는 동남권의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부울경 광역문화재단 협의회가 출범을 하였고 부울경의 고유문화자산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문화 인프라 확대, 네트워크 강화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협업과 모색을 이어가고 있다. 부울경 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활권 단위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며 부산에서만 진행했던 '2021 비치코밍 프로젝트'를 이어, 올해에는 '부울경

1 부산문화재단 사업으로, 생활문화 가치확산 캠페인으로 부산, 울산, 경남 생활문화 동아리와 시민들이 해양 쓰레기를 줍는 '비치코밍'을 통해 환경문제를 일상으로 끌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는 프로젝트

비치코밍 투게더'로 명명하고 부산·울산·경남으로 범위를 넓혀 진행했다. 부울경 시민들이 함께 바다와 문화예술을 매개로 기후환경에 대한 이슈에 개입하는 예술적인 시도였다. 부울경 시민들과 생활문화 동아리의 역량을 모아 총체적 대응 및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였고, 부울경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간절곶에서 비치코밍을 하는 시민들



비치코밍 후 공연예술을 관람하는 모습

공공기관 외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 추진한 프로젝트도 살펴볼 수 있다. 부산의 한 시민은 매일 아침 청사포와 동네를 돌며 비치코밍과 줍깅(줍다+플로깅의 합성어)을 시작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100명과 함께 광안리 바닷가에서 주운 쓰레기를 이용하여 전시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듯 개인의 작은 움직임들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다음 지면들을 차지할 원고들을 통해서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와 활동가들의 예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바다가 주는 힘, 그것은 '행복'이다. 무엇이든 포용해 주려는 아름다운 바다를 앞으로도 우리는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이동열  
삼인행 대표

### #섬 들여다보기

섬에 들어와 정착한 지 12년 차, 강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하구언에 다양한 어류가 많이 모여 살 듯 이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섬으로 정착한 내게도 섬과 물을 드나들며 생긴 다양한 궁금증과 물음이 매일 자라며 서식하고 있다.

그중 섬과 섬사람, 바다가 있다. 강은 물을 구획하면 흘러서 마을과 행정구역 등의 경계로서 서로의 권리와 상대의 책임을 요구하지만, 바다의 경계는 섬이나 연안의 생업을 잇는 사람들과 몇몇 전문가나 최신의 위성 장비 같은 기계가 아니면 경계도 불분명하고 권리와 책임도 힘의 작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 불분명한 권리와 책임 속에서 거친 자연환경과 고립된 외로움에 내몰린 섬과 섬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다만큼이나 거칠게 만들었고, 그리 보였다.

멀리서 섬을 바라보면 섬과 어울린 바다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다. 하지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양쓰레기, 가뭄, 슈퍼태풍, 해양생태계 파괴, 멸종 등, 섬은 우리 시대가 떠안은 모든 환경 문제의 표본이고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런 섬의 환경 속에서 나처럼 물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처럼 잠시 섬을 스치고 갈 이방인들이 식자의 편견만 가지고 그 섬과 섬 주민들에게 기후, 해양, 환경 생태와 같은 말이 갖는 위중함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이변들의 책임 일부가 당신들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쥐보다 같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리 말하기 전에 섬과 섬 주민도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음에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랐다.

## #빨난 섬 프로젝트

플라스틱이 없는 섬(Plastic no'N Seom), 쓰레기로 빨(화)이 난 섬이라는 뜻의 프로젝트는 섬 주민과 이방인인 여행자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섬 주민들이 이를 통해 섬이 처한 지금의 현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보자는 섬 정착 이주민 관점의 출발이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매일 재생산되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도 '기후 위기'의 큰 명제 앞에서는 한낱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는 엄중함의 상징적 자각을 스스로 해보자는 취지의 **공정여행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우선 함께할 주민들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섬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여행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한명 한명 찾아다녔다. 그렇게 모인 이들 중에는 섬에서 태어난 이들도 있었고, 물에서 태어나 섬으로 살려 들어온 이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섬 주민인 동시에 섬 밖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 섬을 떠나본 경험이 섬의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섬지니협의회'**라는 주민 조직을 먼저 만들었다. 섬에서 소수인 채 살아가는 이들과 이제 청년들 다 떠나고 늙은이 몇몇 모여서 섬의 아침을 여는 모습이 섬에 얹혀사는 것이 아닌 섬을 지고 사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9개 섬, 40명 정도의 주민들이 각 섬에서 최소한 한 명 이상 우리의 이야기에 상응해주는 주민을 만들자는 계획으로 3년째 서로 모여 의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과 **섬마을 영화제와 빨난섬 음악회**를 공리했다. 섬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회복과 기후 행동**이라는 주제 의식 아래 섬의 곳곳을 공연장으로 활용했고, 불필요한 무대의 가설 없이 파도 소리와 새 소리, 주민의 뱃소리 모두를 공연 일부로 녹여냈다. 낮에는 해안의 쓰레기를 줍고, 식사에는 모인 이들이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모인 쓰레기를 쌓아두고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섬 주민들과 여행자들이 기후 위기와 해양환경의 문제가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함께 공유하길 바랐다.

섬의 해안을 걸으면 발신지 불명의 온갖 종류 쓰레기와 이질적인 부유물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뉴월의 벼보다도 빨리 자란다. 그런 것들을 줍고 있을 때, 어느 주민은 '또 쌓일 건데 뭇 하러 쓸데없는 일을 하나'며 말을 툭 건넨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치만큼 쓰레기는 안 쌓이겠조"라며 웃고 만다. 그 쓰레기 중에는 섬 주민에게서 나온 것도 많다. 모든 쓰레기가 그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중에 양식장의 스티로폼이나 폐그물과 같은 어구들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 년째 물메기가 잡히지 않아 빈 채로 녹슬어가는 추도의 물메기 덕장이나, 담그면 대물 감성돔이 손 저리게 올라오던 것이 먼 전설이 되어버린 욱지도의 갯바위나, 국립공원 표지판 너머로 바스라진 굴 양식장의 스티로폼 조각들이 선착장 돌 틈마다 빼곡한 추봉도의 갯가에 살면서도 이것이 지금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

섬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그들의 외로움에 위로를, 그들의 가련함에 눈물을 보낸다. 그 섬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산업혁명의 시대, 변화되는 세상과 단절된 채 탄광의 어둠 속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손 새장 속에 들린 카나리아가 떠오른다. 가스가 차오르면 민감한 카나리아는 고통에 지저귀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어쩌면 무너지고 죽어간 탄광 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느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순장 당했을 그 새 한 마리가 마치 내 앞의 선 섬과 섬 주민들 같았다.

부산 해안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몇 해 전부터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고 바닷물이 높아지는 재앙적

인 기상의 반복 속에서 바닷가 어딘가에 성벽 같은 방파제를 쌓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한다. 기후 위기의 최일선인 섬에는 바닷물이 몇 치 높아지면 포구 앞 구판장의 문지방 앞까지 물이 찰랑거릴 것이다. 몇 치 더 높아지면 섬 할매 집 마당에 정지 아궁이가 잠길지 모를 일이다. 이들을 위한 방파제는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 어느 하나 제대로 연민해 주지 않는 섬 사람들의 삶은 누구를 위한 순장인가?

### #우리의 행동은 계속 이어진다

바다에 잠겨버린 시대, 문화는 어느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뽕난섬 음악회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섬에 밀려든 하루 이틀치 만큼의 쓰레기를 치울 뿐이다. 섬 주민들에게 며칠 동안 공연을 함께 나누고 밥 한 끼 대접하며 외로웠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뿐이다. 섬 주민들이 알아차리거나 혹은 아직은 못 알아차려도 우리의 행동은 계속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기후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인지하고 이겨내려는 기후행동의 시간보다 기후재앙이 더 빨라서 우리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채 이 행성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루치의 쓰레기를 치우면 하루만큼은 더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루만큼 위로를 받으면 하루만큼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섬 주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여행자들과 함께 뽕난섬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연의 생명 안에서 인간이 어떤 것의 주인도 될 수 없고, 누군가의 의지로 함부로 죽임을 당할 세상에 나쁜 새는 없다. 나쁜 섬은 없다.



뽕난섬 음악회, 그리고 비치코밍



## 1제곱미터의 우주

창 파

실험실 C 아트 디렉터

### #다대포를 수집하기

다대포는 어떤 곳인가, 또는 무엇으로 이뤄진 장소일까. 당신은 다대포라는 도시에 대해 어떤 기억을 지니고 있는가. 이 글은 《1제곱미터의 우주》 프로젝트로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여름까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다대포를 오가며 몽글몽글 피어올랐던 장소의 면모나, 만났던 이들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물운대에서 겨울눈<sup>1</sup>을 기록하고 내려오다가 인상적인 풍경을 마주하였다. 성창기업에 산더미처럼 쌓인 통나무와 아파트 병풍 사이로 자그마한 해안에 한 무리의 채집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들은 모두 허리를 숙인 채 열중하여 무언가를 줍는 중이었는데, 미역인지 조개인지 알 수 없었다. 저렇게 줍는 것들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여러 날 동안 그곳에 가면 같은 모습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궁금증을 키워가던 어느 날, 바다가 낮아지는 사리<sup>2</sup>에는 해변에서 미역과 파래를 채집할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곳에서 과감하게 해초를 줍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봄이 깊어지자 그들의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해초 채집의 계절이 막을 내린 것이다. 다른 물엿<sup>3</sup>의 시기가 돌아오면 홀연히 다시 모습을 드러내겠지. 바다와 삶의 시계를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고수들, 어촌의 계절 시계를 정확히 아는 존재를 깨닫게 해준 일화였다. 그들에게 자연의 시계를 헤아리는 법을 배우고 싶다. 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사회는 무엇이든 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으며, 유튜브라는 새로운 정보의 바다에선 타인의 지식을 쉽사리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번의 클릭과 달리 '자연의 철과 때를 기다리는 일'은 놀라운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걷기로 했다. 동네 골목이나 시장에서, 마을과 가까운 숲이나 바닷가에서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억에 의존해 장소에 새겨진 생활사와 그곳만의 특수한 자원 그리고

1 겨울눈은 식물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만드는 '잎눈'과 '꽃눈'이다.

2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3 다대 토박이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사용한 표현으로 바다에서 나는 먹을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사라진 것들의 흔적에 대해 수집한다. 우리의 도시에는 오랜 세월을 걸쳐 누적된 이야기가 산재해 있다. (불을 밝히면 서서히 밝아지는 방처럼) 지역에 생활사와 식물문화사의 교차점을 연결하다 보면, 그곳의 고유한 맥락이 서서히 드러난다.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해초 줄은 사람들처럼 말이다.

지난 6월, 《1제곱미터의 우주》 프로젝트에서 물운대라는 생태공간과 다대포 1사장이라는 생활사 공간을 중심으로 현장과 자료 연구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해당 공간에서 장소특정적 전시를 열었다. 숲속의 오솔길과 몽돌이 자글자글 소리를 내는 바닷가 그리고 횃집 골목 사이를 거닐면서 관객은 다대포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해 알아가고, 작품을 감상하거나 체험하며, 다대 토박이 주민의 이야기에 다가선다. 이때 관객은 그곳에 자연을, 예술 작품을, 지역에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동력을 요구받게 된다. 이것은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주제이자 개념인 ‘1제곱미터’와도 연관되어 있다. ‘1제곱미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사람 정도 앉았을 만큼의 작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한의 이야기가 잠재되어 있는 소우주이기도 하다. ‘1미터’는 한 팔을 쭉 뻗었을 때, 사회적으로 개인이 고유성이 지켜지면서 타인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거리이다. 나와 타인, 나와 동네, 나와 동식물처럼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간격이다. ‘1미터’의 공간에는 무수한 생명이 깃들여 있다. 물운대에서 어느 곳이든 가만히 앉아 1미터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엔 엄청나게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땅속에는 씨앗과 뿌리가 들어 있고, 이와 연결된 곤충과 동물도 그 장소를 드나든다. ‘1미터’는 생명을 움트게 하는 에너지와 자양분의 공간이다. 우리는 《1제곱미터의 우주》라는 렌즈를 통해 다대포 속 다양한 ‘1미터’를 관객과 함께 찾아보고자 하였다. 1제곱미터의 우주는 장소가 지닌 생태적인 가치와 생활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문화예술의 실천이다.

다대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낙동강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기수역이다. 강과 바다의 경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민물과 갯물이 자유롭게 섞이고 어우러지며 다양한 농도의 염도가 분포하며, 덕분에 풍요로운 생태환경을 갖추었다. 덕분에 다대포 앞바다는 다채로운 종이 서식하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포구로써 어촌이 형성되어 사람이 정착하였다. 다대포 옛 포구의 모습을 다룬 기사(경향신문 1983년 02월 04일 발행)에는 한 장의 사진이 실렸다. 봄철을 맞이해 배를 수리하는 두 어민의 모습과 뒷배경으로 꽤 많은 나룻배가 바다에 떠 있다. 현재는 볼 수 없는 광경이나, 다대포는 옛날부터 배가 드나드는 물류의 중심지였다. 포구, 군사지역, 여가시설과 산업시설, 밀항과 밀수, 황금어장과 활어시장처럼 바다를 맞댄 다대포는 부산의 끄트머리 항구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다. 한 주민은 인터뷰에서 “바다에는 캐도 캐도 황금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던 아버지의 말은 해주셨다. 황금어장. 다대포는 어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기댈 수 있던 곳이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존의 토대였다. 1960년까지 다대포에서 멸치가 잡혔다고 한다. 그러나 다대포 앞바다에서 멸치가 사라지고, 후리소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 문화로 남아 전승되고 있는 것처럼 바다도 다대포도 사정이 달라졌다. 1967년 다대포 공설 해수욕장 개장, 1970년대 목재업체들의 설립, 1981-87년 다대지구 택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도시의 경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1990년대 거주 인구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무렵 금속공장, 냉동창고, 수리조선, 신평·장림공단, 소각장 등 산업시설이 늘며 산업을 견인하는 도시의 역할이 더해졌다. 다대포는 생태환경과 산업도시의 모습이 뒤섞인 풍경을 갖게 되었다. 무질서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경관 사이로 어촌의 일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예술로 만나본 다대포

실험실 C는 강은경, 고등어, 김경화, 김덕희, 김민정, 조혜진 작가와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함께 하는 기획팀을 구성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다대포에를 리서치 하였다. ‘1제곱미터의 우주’에 관한 주제 스터디, 다대포의 거시사 조사 및 정리, 생활사 수집, 9명의 주민을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전시에서 선보였다. 전시는 깔끔한 갤러리가 아니라 거친 생활의 공간으로 선택했다. 바로 우리가 걸었던 리서치 장소인 물운대와 다대 제1사장을 중심으로 관객과 걸을 수 있는 루트를 물색했다. 작품을 보고 체험하고 듣기에 적합한 장소를 고르는 일은 꽤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 전시 구성은 ‘1제곱미터의 우주’, ‘다대 포시즌(four seasons)’, ‘인 시즌(in season): 제철과 움직임들’로 나뉜다. ‘다대 포 시즌’은 물운대 속에서 1제곱미터의 우주를 찾아보고 감각하는 생태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절마다 다시 돌아오는 자연의 시스템이 선사하는 여러 장면 속에서 6월이라는 한 페이지를 함께 탐색한다. 현시대에 우리의 소통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관계의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다대포의 자연 속에서 사유하고 오감으로 감각하는 시간이었다. 물운대 입구의 큰길이 아닌 사잇길을 30분 정도 걸어가면서 진행되었는데,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군락, 새머루, 큰천남성 등 크고 작은 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1제곱미터의 우주’에서는 예술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대포의 비가시적 세계를 다루었다. 6명의 예술가는 다대포의 생태적 요소, 주민의 기억과 진술, 사회구조와 갈등, 시공간의 압축 등 도시의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인지하고 상상하도록 예술의 언어로 구체화하였다. 드넓고 풍요로운 바다와 산업시설, 폐소각장, 가덕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양지바른 터에 설치된 김경화 작가의 <자유의 가능성>(2022)은 다양한 존재를 보듬고 키워내는 어부림(魚付林)으로써 물운대의 생태적인 에너지와 그에 못지않게 해안에 빼곡한 유리조각, 어업용 페스티로폼 쓰레기를 채집하고 다듬어 사람과 자연의 경계에 선 다대포의 장소성을 간파한다. 높게 자란 참나무 군락과 사스레피나무 군락에 설치된 김민정 작가의 <보이지 않는 루페>(2022)는 리서치에서 수집한 자연과 도시의 이미지를 미시레벨로 확대한 드로잉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인간과 무관하게 진화하고 변화해온 것들과의 관계를 세밀한 시선으로 쫓는다.



김경화, <자유의 가능성>(2022)



김민정, <보이지 않는 루페>(2022)

고등어 작가는 물운대에 있는 식물들이 듣는 소리를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드로잉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 사운드 스케이프 작업 <다섯 개의 귀: 식물처럼 듣기>(2022)와 상호 작용하는 두 종의 생물의 공진화와 다대포의 밀항을 연결한 영상작업 <빛 먹이기>(2022) 원화를 전시하였다. 김덕희 작가의

〈기억하는 바다〉(2022)는 수천만 년 동안 퇴적하며 형성된 물운대의 자갈과 바위, 식물과 바다가 조우하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사유하도록 제안한다. 물운대 해안에서 관객은 ‘바다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안내서를 따라 자연에 놓였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몸짓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고 경험한다. 강은경 작가의 〈파래 띄: 바다와 나는 나누어 먹는다〉(2022)는 다대포에 환경적인 변화로 사라진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또다시 헤아릴 수 없는 원인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의 안위를 바라는 식 경험 퍼포먼스이다. 조혜진 작가는 〈함판에서 몽돌까지〉(2022)라는 제목처럼 함판공장부터 몽돌 해변까지 오가며 나무를 모았다. 얇은 날장의 나무가 겹쳐지고 단단해지며 쓰임새를 획득한 함판의 개념과 거센 조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공평하게 둥글어지는 몽돌의 태도에 집중하며 이를 조각으로 설치한다.



김덕희, 〈기억하는 바다〉(2022)



조혜진, 〈함판에서 몽돌까지〉(2022)

‘인 시즌: 제철과 움직임들’은 황금 어장이라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바다를 배경으로 형성된 다대포의 생활사를 다양한 매체로 찾아보고 체험하도록 제안한다. 지역사와 생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디 연결하기’, ‘파래’, ‘제철과 움직임들’, ‘그럼에도 다대포’는 역사의 질곡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계절마다 알맞은 것들이 존재하고 순환하는 다대포의 제철(in season)을 되새기며 상기하여 본다. 다대포의 장소적 특성, 어업의 생활상과 변화, 사시사철 반복되는 움직임에 대하여 거시사와 생활사를 교차하는 아카이브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사운드시스템 <다대포의 제철>은 전시 관람의 끝자락에 감상하는 작품으로 숲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이곳의 제철에 대한 주민의 인터뷰 목소리를 재편집한 음성 작업이다.

물운대 숲길과 다대포항의 공장들과 1사장의 상가들과 고운 모래 위를 걸으며, 때론 고요한 숲에서 솔바람 파도를 맞으며, 주체적으로 생활사를 구축해 온 아홉 명의 주민과 마주 앉아서 우리는 무수한 대화를 나누었다. 다대포라는 장소가 지닌 풍요롭고도 독보적인 환경과 그곳에 일어난 공간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찾고 생태와 예술과 생활사를 발견하려 했던 《1제곱미터의 우주》는 다대포에 감추어진 여러 우주를 비추어 준다.

## “생명평화미술행동”, 사회적 문제에 미술로 행동하다.

성 호 숙  
화가

### #들어가며

하늘이 투명하고 빛나는 날엔 마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듯하다. 비 개인 후 씻겨나간 마  
알간 얼굴들, 초록빛 바다와 나뭇잎은 바람에 넘실거리고 달의 인력에 의해 춤추듯 출렁거리는 파도는  
깊은 숨을 쉬고 있다. 별들은 지구별에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는 듯 끊임없이 반짝이고 있다.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것처럼.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우리가 눈 막고 귀 막은 것처럼. 보다 못한 하늘은 튜베리라는 어린 아이  
를 보내 깜빡이기도 한다. 지구가 몇 개라도 되는 듯 다음 세대는 없는 것처럼 마구 파헤치고 퍼 쓰고 있  
는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경고를 하며 깜빡인다.

천천히, 이웃과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하지만 요즈음의 삶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이 원고를 써야  
하는 날 연안환경미술행동으로 삼척을 가게 되었다. 삼척에서 석탄화력발전 반대행동으로 지역의 하태  
성, 성원기, 김덕년 집행부와 김지영 연구위원님께서 생명평화미술행동 작가들을 초대하여 미술행동과  
전시를 하게 되었다. 삼척은 요즈음의 기후위기가 자행되는 하나의 원인인 듯 모순의 축소판인 것 같다.  
생명평화미술행동이 2020년 새만금 미술행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듯이 현시기의 모순들이 집약된 곳이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자본의 시스템 아래 움직이니 이 체제 안에서 움직임의 한계를 느끼다  
가도 갈등의 정점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 #환경에 대한 관심의 시작, “새만금”

생명평화미술행동이 시작된 2020 새만금문화예술제의 제목은 “새만금 코이노니아”였다. 코이노니  
아는 영적 사귀, 나눔이다. 2020 새만금문화예술제에서 문규현 신부님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던 풍  
요의 땅에 백합과 동족, 바지락과 뚝장어, 실뱅장어와 주꾸미, 전어와 송어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 철새들

의 군무가 장관을 이루어졌던 땅에 33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들어선 후 방조제 안쪽 담수호는 썩은내가 진동하고, 하얀 겁데기만 남은 백합의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해마다 물고기의 떼죽음은 늘어가며, 군무를 펼치며 날던 철새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풍요의 땅, 축복의 땅이었던 이 곳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게 새만금은 회한의 갯벌, 상실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잘못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오만함에 대한 뉘우침을 통해 다시 새만금이 생명의 바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못 생명의 희생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우리 함께 생명과 상생, 공존의 땅으로 새만금을 변화시켜 나갑시다..." 라고 간절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홍성담 화가는 "대지의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새만금 땅인데 사람의 자궁이 막히면 육체의 생명이 위험하듯, 땅의 자궁인 새만금이 틀어 막히면 우리나라가 병이 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생명의 자궁인 새만금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예술인들이 미술행동에 동참한 운동이 바로 새만금문화예술제"라 하였다.

생명평화미술행동, 연안환경미술행동은 새만금을 포함하여 남한의 바다를 다니며 연안의 오염을 목격하고 플라스틱 바다가 되어가는 폐해도 알리고 못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작가들이 모여 움직였다. 작가들 중에는 연안환경미술행동 이전부터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작업해오던 작가들도 있고 미술행동을 하며 합류한 작가들도 있다. 연안환경미술행동은 그동안 신안 앞바다, 군산, 울산, 인천, 삼척 두 번, 부산, 새만금 두 번, 목포, 흑산도를 다니며 플라스틱의 폐해와 멸종위기를 알리고 작업으로 발언하였다.

## #생명, 평화, 환경을 생각하는 예술인들의 행동

생명평화미술행동의 작가들은 지금 여기의 환경생태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는데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세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미술행동과 전시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한 작가들 중에 두 부류는 80년대 광주항쟁으로부터 세례를 받아 시작된 광주, 목포 작가들, 홍성담, 홍성민, 전정호, 박태규, 김희련, 주홍, 김화순 작가와 80년대 미술운동과 노동 현장에 함께 한 미술동인 <두렁>의 성효숙, 정정엽 작가, <시대정신>의 박건 작가가 있다. 이천년대의 화두인 생태환경 문제에서 새만금의 독을 트고 물을 흐르게 하라는 취지에서 제1회 새만금문화예술제에서 첫 발을 내민 것이다. 작가들은 해창갯벌 근처의 초등학교 강당에 모여 만장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해창갯벌, 수라갯벌 일대에 만장을 걸고 바다가 들려주는 신음, 바람 소리와 함께 하며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세 번째는 80년대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 세대들과 환경생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작가군으로 강민구, 박성호, 천현노, 전해옥, 주라영, 권계영, 서진선, 이소담 작가이다.

연안환경미술행동은 비단 바다에 관한 행동만은 아니다. 삼척에서 보여주듯이 에너지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와 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환경 생태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고 공공의 지원책도 생각해 본다. 지역마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새만금 문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서 전주의 광장에서 문화예술제를 하였고 전주의 70



여개 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인천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민예총이 결합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였고 목포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과 예술가들이 목포의 초등학교들과 만나며 커뮤니티 아트, 미술행동과 전시를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첫 시작의 내용과 형식이 중요하므로 재원은 작가들이 직접 호주머니를 털어 작업해왔다. 관과 결합할 때 부작용의 사례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이나 재단이 예술가를 지원할 때 지원은 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재단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천의 구 단위 재단에서는 오히려 재단이 주도하여 기후위기 환경생태 문제를 시민들과 만나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들도 있다.



2021년 인천에서의 미술행동

## #나가며

지금까지 만든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가 된 이 시대에 이런 황폐한 세상을 물려주게 되어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80년대부터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세상일 리가 있겠는가. 전국의 연안이 있는 지역을 다니며 미술행동과 전시를 하는 우리의 힘은 거대한 자본의 힘보다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도 쟁취하였다. 현재가 부끄럽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움직이고 발언할 것이다. 우리가 민중들,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그 힘으로 희망의 세상의 꿈을 놓지 않고 갈 것이다. 생명평화미술행동의 동지들이 있음으로 이 황폐한 시대를 따뜻하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짧은 줄고를 마친다.

## 예술계 밖에서 바라보는 기후와 문화예술의 접점

이 성 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 #환경과 탄따라

무뎠하게 예술의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을 ‘탄따라’라고 부른다. 전업 환경운동가로 산 지 36년, 사실 탄따라들과 환경문제를 공유했던 기억은 제법 오래된 듯하다. 낙동강, 금정산 관통 고속철도 등등에서 극과 노래, 시 또는 창작무용 그리고 그림으로 하나가 되어 활동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삼랑진 산업 폐기물매립장의 문제를 다루었던 극단 자갈치의 ‘뒷기미 병신굿’은 현장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마당극이다. 극단의 지향점과 당시 환경단체 공해추방운동협의회(약칭-공추협: 부산환경운동연합 전신)의 반핵 반공해 미션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지역 환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비중으로 기록되는 사건이다. 물론 이 싸움은 지역민이 이겼고 사업은 백지화되었다.

굳이 옛 기억을 들추어낸 것은 ‘접점’이란 단어 때문이다. 이 또한 오랜만에 접한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같이 손을 잡는다는, 그 연결 고리는 늘 열려 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역동성은 다소 무뎠졌지만,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 앞서 지면을 장식한 이슈들은 또 다른 현장이라 본다. 그럼에도 현장은 늘 문화예술계 탄따라들과의 결합 혹은 접점에 목말라 한다.

### #인간의 욕심이 부른 재난들

저성장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당되는 거대개발의 음모는 지구온난화로 비롯된 기후위기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산이 사라짐으로 인해 생물종다양성에 치명적이다. 안타까운 노릇은 코로나19의 등장과 지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원인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왜 등장했는가. 인류의 과도한 개발욕구가 야생의 경계를 허물어 버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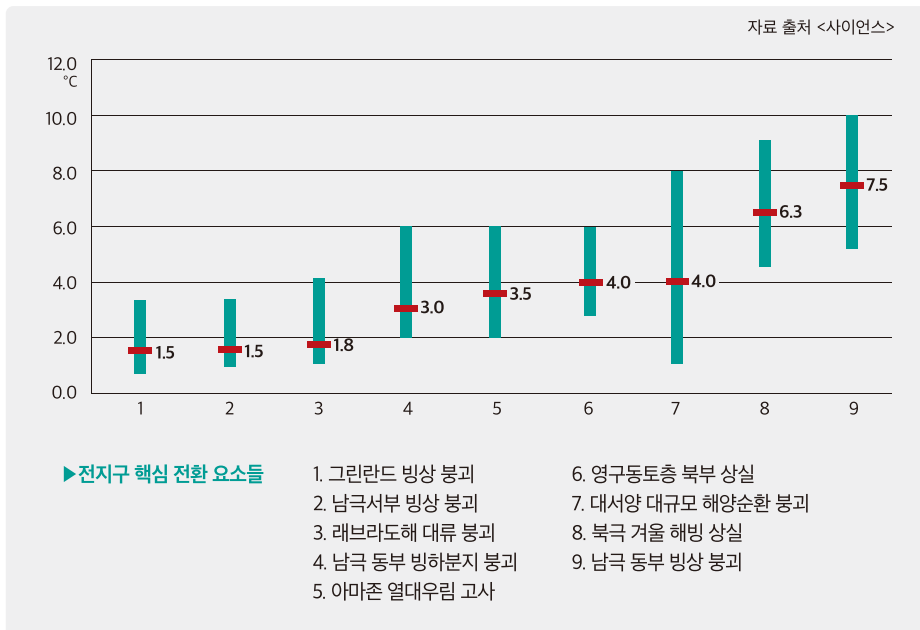
그 점염 전파력과 파괴력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었다.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간 교역과 이동이 차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집회와 회의 세미나는 비대면이 강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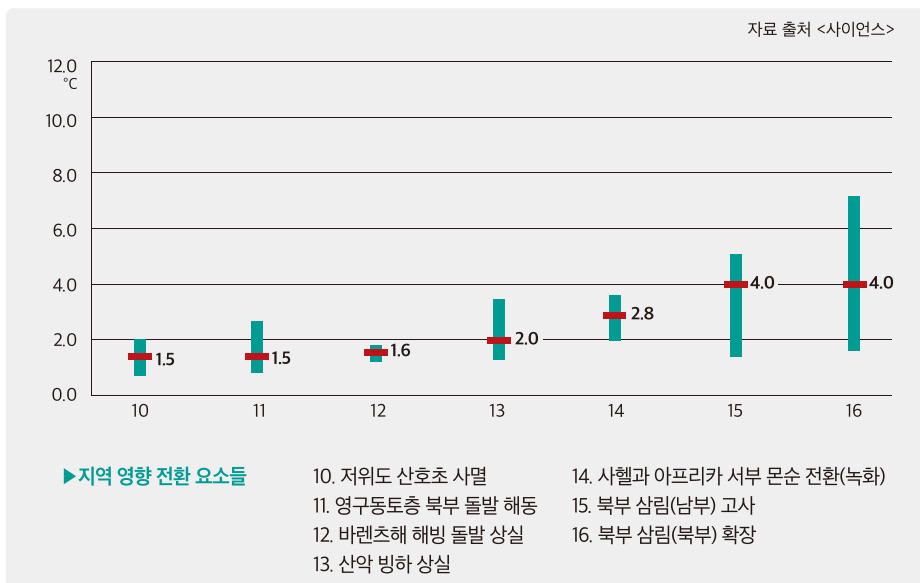


다. 이 시기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잠시나마 짓눌렸던 대기가 정상을 찾아 맑았던 적이 있었지만 기후 위기를 조장한 중독적 풍요와 파괴적 성장의 신화를 깨지 못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활고의 압박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맞이했던 ‘기회’조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오역되었다. 문명의 반성과 새로운 이정표 찾기는 그렇게 유야무야 됐다. 고약하게도 IMF가 그랬듯 코로나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간에 축적된 온난화에 지구는 더는 버틸 힘을 상실하고 와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제활동이 급락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견잡을 수 없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 #기후위기, 어디쯤 와 있을까?

언론을 통해 거의 매일 전해지는 엄청난 면적의 산불과 폭염, 홍수 나아가 남북극을 비롯한 고산지대의 빙하유실과 해수면 상승, 또 이로 인한 생물종의 격감은 기후재앙 시대로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2000년대 초기에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펜타곤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테면 동유럽 곡창지대가 장기 가뭄으로 흉작이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웃 국가들이 윤리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다가 정작 자국 상황도 어려움에 직면하자 경제봉쇄에 돌입하면서 충돌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가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가공할 무기가 등장하면서 중국에는 서로 치유치 못할 길로 간다는 시나리오다. 그 시초가 이상기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소 다른 양상이지만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본질은 같다. 그 여파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앙등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식량, 에너지문제가 전면화되었다.





16가지 기후위기 티핑 포인트 임계온도. 빨간 줄은 각 기후 티핑 포인트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임계온도값. 검은 막대는 임계온도 추정치 상한과 하한 범위. (자료=<사이언스>)

이같은 상황은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속도가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심각해진다. 2020년 기준 곡물자급율 20.2%, 식량 자급율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낙후시키는 기형적 에너지 자급율은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위협변수가 될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가운데 58위 등을 근거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불려진 지 오래다.

오늘의 환경운동은 이같은 국내외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여기에 수반되는 의제는 세대간 환경정의 혹은 더 넓게는 기후정의, 인권과 인종,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 등을 관통한다. 체제가 문제되긴 하지만 지구 등골을 빨아대는 흡혈귀는 자본주의며 사회주의를 가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0년 화석연료 남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이다. 솔직히 반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만이라도 된다면 파국의 시간을 다소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낮추기 위한 국제적 약속과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 #범위를 아주 좁혀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보자

이 도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 실천이 부산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데도 대응과 방법 구사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를 틀고 있다. 대규모 개발을 통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요량으로 목을 메다시피 전사적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대표적 현장이다. 내걸은 기대 효과가 만만치 않지만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건설의 비용(C)대비 편익(B) 비율(B/C)이 0.51로 나

왔다. 이 비율이 1 이상 나와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그 값이 틀렸다면 그 모든 것이 항공마피아의 농간이며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항변한다.

관련하여 환경단체들은 가덕도가 신공항부지로 적지가 아닐뿐더러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파괴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그렇다. 부산시민 누구도 가덕도의 생태 정보며 역사유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개발에 앞서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득실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애초부터 제공되지 않았다. 오로지 월드엑스포 개최 전까지 공항은 만들어져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역에 출현하는 국제 보호종 상괭이며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생물이 깃든 남해안 유일의 국수봉 100년 숲의 존재는 신공항 건설의 장애물처럼 취급한다.

환경단체는 이를 알리고자 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예술 그룹과의 접목에 목말라 한다. 일부 소수 종사자들이 동참을 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와 몸짓은 섬에 갇혀 버렸다. 기후위기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관심과 연대가 공존을 가능케 한다. 주변을 돌아보라. 그리고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탄따라들의 소리와 몸짓으로 재해석하는 실천이 시급하다.

##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 미래수요 조사 연구<sup>1</sup>

### -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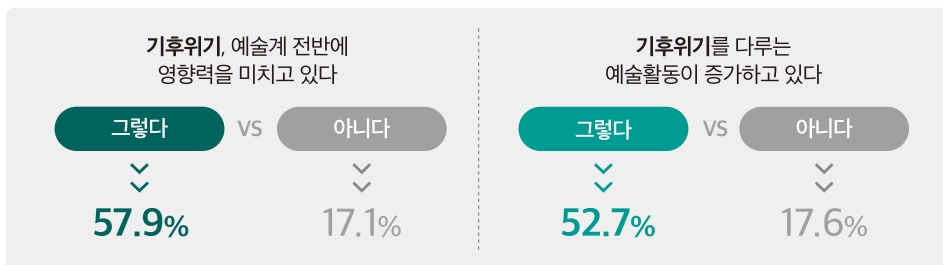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예술단체·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5,596명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사업 경험, 예술전반 및 공공지원에 대한 인식, 미래 예술지원사업 수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미래 예술지원사업 수요 관련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①기후위기와 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 ②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불참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인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기후위기, 외면할 수 없다

##### - 기후위기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 예술계 전반에 기후위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기후위기를 다루는 예술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후위기를 비롯, 다양한 환경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크게 일상생활 속 직접 겪은 경험, 기후위기 및 재난으로 인한 공연취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하는 예술환경과 인간관계의 양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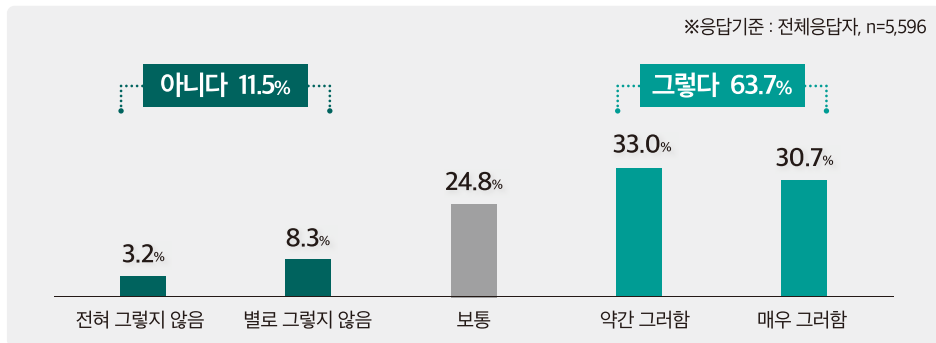


<sup>1</sup> 2021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 본 원고는 해당 보고서 중 기후위기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 참여 정도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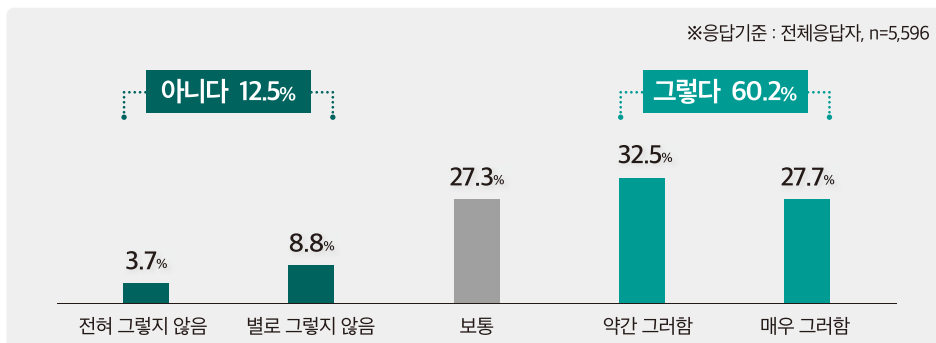
## #“예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 - 기후위기 속 예술의 역할

> 전체 응답자 중 63.7%는 기후위기 담론 매개체로서 예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이 기후위기에 대해 개인적, 집단적 대응방안을 탐구하는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기후위기 담론 매개체로서 예술



[그림 2] 변화 수단으로서의 예술의 역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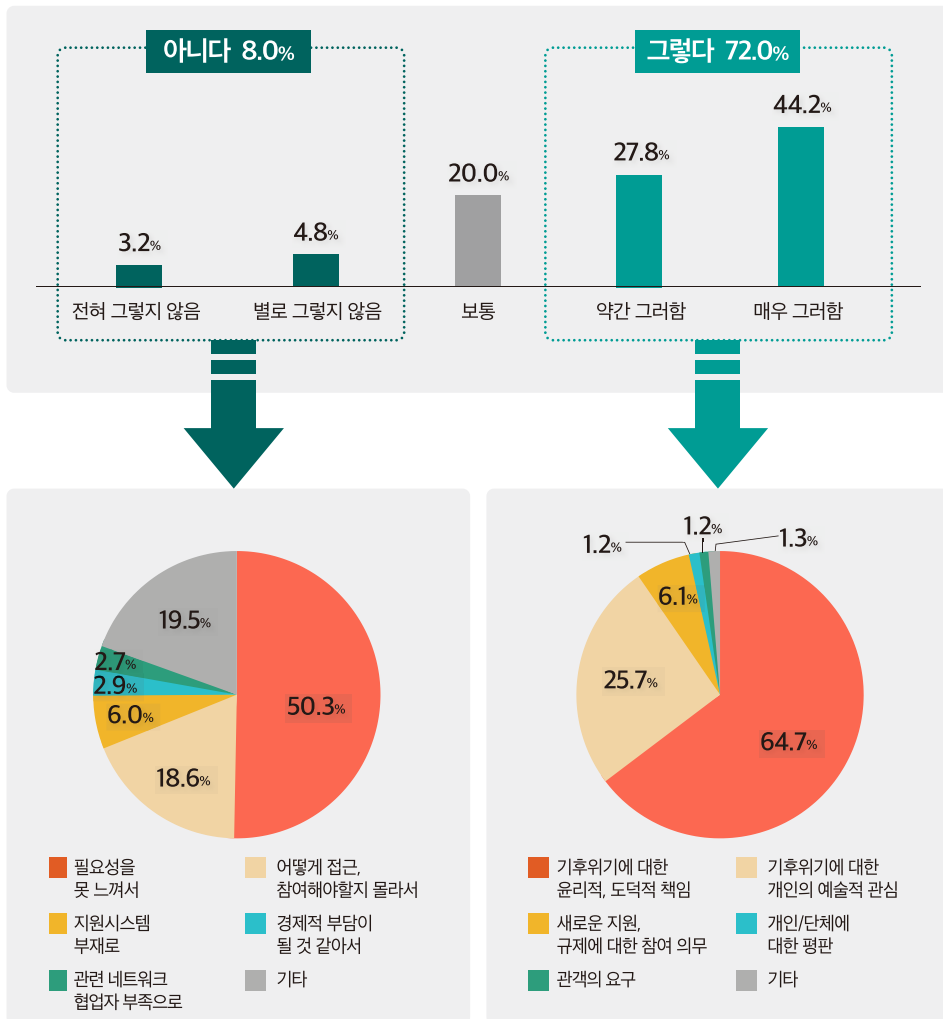
> 한편,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작품 재사용 방안 마련, 창·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환경문제 조명, 친환경 소재 활용 작품 제작 등 실제로 이미 예술활동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를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술정책, 당신은 참여하시겠습니까?

### - 기후위기 관련 예술정책 참여 의사

>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술정책이 실현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인 447명,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인 4,030명이었다.

> 예술 관계자의 가장 큰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 참여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과, 기후위기에 대한 개인의 예술적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기후위기에 대응해 앞으로 예술활동 환경에 필요한 것

##### - 친환경 예술활동을 위한 다양한 여건 마련

- > 친환경 예술활동 독려 가능토록 친환경 활동 효과 가시화(데이터화)
- > 창작과정 중 환경 관련 자문이 가능한 에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환경 가이드라인
- > 현 정책의 친환경 예술활동 제약 여부 검토 등

#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09. ~ 10.

## 부산문화재단

### ● 부산문화재단, 쿠무다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1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9월 15일 쿠무다(이사장 주석스님)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와 지원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 부산문화재단, UNESCO, EU 지역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 제시(9.28)

재단은 9월 20일~23일에 걸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 - 조선통신사 세계로 사업’의 일환으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문화외교 사절단인 新조선통신사의 임무를 띠고, “파리 유네스코 본부”, “EU 교육문화총국(DG EAC)” 등 세계적인 문화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 ● 부산문화재단, 프랑스 국립거리예술창작센터 리유 뵍블릭(Lieux Publics)과 업무협약 체결(9.30)

재단은 9월 30일 프랑스 국립거리예술창작센터 리유 뵍블릭(Lieux Publics)과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IN SITU 차기 운영위원회에 부산문화재단을 협력 파트너로 제안 ▲문화예술분야 교류 협력 ▲예술인과 단체 교류 지원 ▲부산문화재단과 리유 뵍블릭의 인적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 ● 부산문화재단, 2022년도 청년정책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10.4)

재단은 2022년도 정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청년을 세대 특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삶 개선과 기존의 정책 개선에 기여한 바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복지 지원, 권리침해 피해 구제 전담 조직 만든다(9.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1일(목),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

-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9.8)**

문체부는 9월 8일(목),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

- **'이건희 기증품 지역순회전'으로 문화 향유의 지역 균형 뒷받침한다(9.26)**

문체부는 10월부터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본격적으로 개최한다.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저변을 확대하고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연계망을 활용, 2024년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 **지역문화 현장 의견 수렴으로 새 정부 문화도시 발전 방향 모색한다(9.29)**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과 함께 9월 29일(목)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가칭)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문화도시 1단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문화도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계획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ARKO한국창작음악제 이건용 추진위원장 제67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9.5)**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에서 추진하는 기획 사업인 ARKO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 이건용이 제67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극장과 업무협약 체결(9.30)**

예술위 아르크예술기록원은 국립중앙극장(극장장 직무대행 강성구)과 문화예술 분야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을 9월 29일(목) 국립중앙극장에서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 관련 협력 ▲문화예술 분야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양 기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 **새로운 예술을 준비하는 지역예술가를 찾아가는 '아트애펜크 살롱' 교육 개최(10.5)**

예술위는 예술기술 융합 교육프로그램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그동안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역 예술인을 위해,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와 함께 경북·전남·충남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아트애펜크 살롱' 교육을 추진한다. '아트애펜크 살롱'은 예술위의 아트애펜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의 시대에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창작자를 위한 연결과 축진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사회참여형 예술지원 신청 접수(9.15)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9월 14일(수)부터 21일(수)까지 <2022 사회참여형 예술지원> 사업 공모 접수를 진행했다. 본 사업은 예술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탐색하고, 예술 창·제작 및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의 사회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다.

- 인천문화재단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바자회 개최(9.29)

재단은 지난 9월 28일(수)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바자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건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인천시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바자회 수입금은 재단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기부처로 전액 기증될 예정이다.

## 울산문화재단

- ‘음악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뮤직 플랫폼’ 2022 울산에이팜 개최(9.5)

울산광역시와 주최하고 (재)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정배)이 주관하는 제11회 울산에이팜(Ulsan APaMM)이 9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 예술인·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착수(9.1)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9월 1일 관계자 및 수행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경남 예술인·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2022 영남권 지역문화활동가대회 개최(9.30)

지역 문화 기획자의 일거리를 확장하기 위한 분야별 과제 발굴을 위해 문화기획자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가 대회를 연다. 진흥원은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진흥원 합천 청사에서 ‘2022 영남권 지역문화 활동가 대회<다음 자리>’를 연다고 밝혔다.

##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광주형 문화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행사 성료 (9.30)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은 9월 28일, '기업과 예술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2 광주형 문화메세나 '3대 문화동행(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중 '기업문화동행'으로서 기부 및 잠재적 기부기업인들과 함께 광주문화 메세나 활동을 기념하고, 기업의 기부 참여 방법 등 안내를 통해 기부의 꽃을 피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전남문화재단

- 새로운 도약, 전남의 문화진흥 위한 전략방향 모색(9.4)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 이하 재단)은 9월 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대도약 전남, 문화의 힘으로'를 키워드로 한 이번 포럼은 새 정부와 민선8기 전라남도의 문화정책 이슈를 살펴보고 전남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로 죽어있는 공간을 살린다(9.7)

재단은 '2022 문화기반시설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단체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방치된 문화기반 시설을 발굴,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공간지정형, 공간발굴형 등 총 6개 지역 8개 시설이 선정되었다.

## 금정문화재단

- 부산 금정문화재단, 2022 부산국제공연예술제(B.P.A.F) 개최

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윤)은 부산시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2022 부산국제공연예술제(B.P.A.F)'를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금정구 온천천변 일원에서 개최했다.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마을공동체가 만든 마을영화, BIFF 상영(9.29)

(재)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황영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지 내 마을공동체가 직접 시나리오 기획부터 연기, 촬영 등 영화감독, 배우로 구성된 멘토에게 교육받아 단편영화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마을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작된 마을영화가 10월 10일 부산 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에서 상영됐다.



#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8호

2022.09. - 10.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 10. 31.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f.or.kr](http://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서승우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